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춘교동 174-3
E-mail : hc1260@hanmail.net
TEL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발 행 인 : 한 균

춘천성시신문

성시비전
교회갱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1998년 9월 15일 창간 | The Chuncheon Holycity Times | 제115호 2008년 6월

희생의 계절, 6월!

숭고한 희생 위에
새날을 얻게 하신 유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으로
가슴속 깊이 응어리진
절망과 슬픔이 사라지고,
미워함도 없고,
시기함도 없고,
멸시함도 없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맛보는
유월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INDEX

3 성시운동 본부와 함께하는 '청소년비전 캠프'
4 성시화어, 세계를 향하여 날아오르라!
11 축복의 가정을 세우면 '가정편지'



8 | 축복의 통로



13 | 라스트 씬 이터

미국산 소고기 수입 어떻게 바라봐야하나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한미 FTA 때문에 나라가 온통 시끌벅적하다. 엄격한 의미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한미 FTA는 별도의 문제이다. 그러나 한미 FTA의 큰 틀에 미국산 수입 소고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안은 쉽게 하나로 묶일 수 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시각차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통치이념으로 시작된 지금의 정부는 대부분의 사안을 이해득실이란 관점에서 분석한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전체적으로 이익의 규모가 어떻게 되며 누구에게 더 이익인가 하는 말로 국민을 설득한다. 당연히 현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한미 FTA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분석하고 결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신앙적인 면에서 보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한미 FTA'라는 것이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신앙이란 보다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가치와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익이라는 가치관과는 뿌리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일에 신앙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기심

광우병은 양에게 발생하는 스크레피라는 병으로부터 시작한다. 병에 걸린 양의 사체를 소의 사료로 사용하자 소에게 이상 현상이 일어났다. 드디어 이 병은 소에게서 인간에게로 전이되기 시작했고, 비로소 세계적으로 문제를 삼고 관심 같기 시작했다.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움에 대한 유혹을 받는다. 창조적이라는 미명하에 기존의 것들을 변형시키려는 노력을 쉼 없이 기울인다. 어떤 종(種)을 억지로 잘게 쪼개어 신종을 만들려고 하거나, 종(種)과 종(種)을 결합시켜 새로운 종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종(種)의 고유영역을 파괴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기울인다. 어떤 이유로든 종(種)은 자신의 습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특성은 그 종(種)이 존재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가 풀을 먹는 것은 고유의 존재방식인 셈이다. 문제는 이 존재방식을 깨뜨리려고 하는 인간의 그릇된 생각이 문제의 근원이다. 동물성사료를 먹이려고 했던 발상자체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광우병은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근원적인 문제는 이해득실이란 척도 모든 사안을 재단하려는 사고의 척도에 있다. 병에 걸린 양을 소의 사료로 사용하려는 발상의 시작은 이익창출이라는 목표 때문이었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무장한 이들은 죽은 양을 그대로 버리기가 아깝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사료로 사용하려고 했다. 또한 목초 가격이 오르자 동물성 사료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여기에 맞물렸다. 손해와 이익이라는 가치기준으로 사건을 측정하기에는 세상은 너무도 다양하다.

투자와 이익이라는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 된다. 소각해야할 것을 아깝다는 이유로 다른 생물에게 사료로 주는 것이 일시적으로 이익처럼 보였지만, 결국 훨씬 큰 손실을 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근본적인 숙고 없이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려 일을 시도했다가 더 큰 손해를 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새로운 영역에서 이익을 산출해보겠다고 또다시 장난을 시도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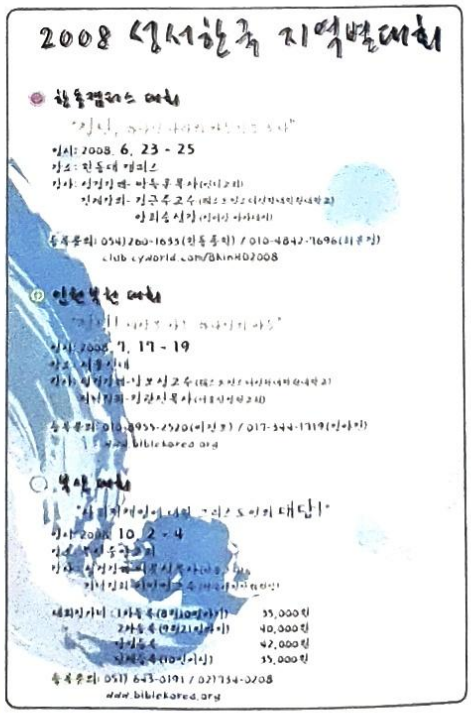
우리는 성경이 병과 주검에 대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민한 것을 알 수 있다. 정결법의 범주에는 생활 속 청결과 위생까지 포함되어 있다. 어떤 이는 흑백의 논리라고 가볍게 말하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존재방식에 대해 정확한 구별이다. 성경은 고유한 존재방식에 대해 존중하고 있다.

창조성이라는 이름으로 근본적인 존재방식을 깨뜨리고 억지로 새로움을 창출하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실용성이라는 이름으로 이해득실 그리고 투자와 이익이라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복음처럼 선전하는 것 역시 그렇다.

이번 사안이 좁게는 광우병에 집중되어 있지만, 넓게 보면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한미 FTA에 접근하는 우리의 인식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성경에는 광우병, FTA, 생명공학, 유전자조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진작부터 하고 있다. 창조성과 경제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간의 위험한 놀이에 대해 그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그러한 결과가 재앙이라는 사례도 성경은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글. 이 정 배 목사 (회천청소년수련관)]





국가자격 요양보호사 수강생 모집

취업을 걱정하십니까?

-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따른 5만 5천명의 요양보호사 인력필요
- 6주 교육 후 시험없이 국가자격 취득
- 연령 학력 성별 제한 없음
-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설장 자격 획득

개강 4월 21일(월) 개강 이후 수시모집(주간 · 야간 · 주말반)

강원도 지정 교육원

기존의 간병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케어복지사, 노인복지사 등 봉사요원은 이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을 취드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최고의 강사진
- 탁월한 교통 요충지
- 체계화된 교육내용

[섬김과 나눔 요양보호사 교육원] ☎ 241-8801 · 241-8802

(운교등 피출소 앞, 외이신협, CBS기독교 빙송 3층)

성시화운동본부와 함께 하는
'청소년 비전캠프'
해외선교 · 교육 · 문화 탐방



지금 세계는 하루권시대이다. 우리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영어를 배운다. 국제무대에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국제무대인 셈이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나라를 흠모하며 성시화를 최초로 시도했었던 조그만 도시 춘천은, 어떻게 세계가 한 가족처럼 울타리를 허물고 사는 이 시대에서 세계를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아니, 그 한 부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3~4개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200개가 넘는 전세계의 국가들을 다 다녀보았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그의 국제사회 속에서의 한국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에 기대를 걸어보게 된다.

이때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어찌하면 큰 인물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한 가지 프로젝트를 개설하고자 한다. 우리의 청소년들을 세계무대에 나가 세계를 변혁시킬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런 마인드를 형성해야 한다. 이는 기회 닿는 대로 우리만의 울타리를 헐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리라 판단하였다. 큰 교회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그런 기회를 갖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따라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 이 역할을 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중간에서 작은 교회 또는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게 된 것이다.

우선 우리와 가장 가까우면서 또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중국을 경험하고자 제1차 방문 국가로 선정하였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핏줄이 살고 있는 동북삼성 지역은 우리민족의 정기가 면면히 흐르고 그 흔적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곳이다. 우리 춘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련 그리고 연길, 하얼빈, 단동을 돌아보며 우리민족의 족적을 밟고 민족혼을 느끼며 백두산에 올라 민족의 한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중국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의 청소년세대들의 안목을 넓혀주며 문화적 경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선교마인드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청소년들이 큰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번에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선한마음을 가지고 실시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글로벌시대에 세계적인 안목을 갖고 하나님의 인재로 자라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글. 춘천성시본부 국제위원회위원장 박인관 목사]

'청소년 비전캠프'

- 일 시: 2008년 7월 20일~26일 (5박6일)
- 장 소: 중국 대련, 단동, 백두산
- 프로그램: 독립운동 유적지방문,
  단동가나안농군학교 훈련,
  조선족교회 집회,
  백두산등정기도회 등
- 경 비: 600,000원(예상)
- 마감기간
  : 2008년 6월 25일까지 선착순 30명
- 주 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후 원: 춘천기독교연합회 선교위원회,
  춘천성시화국제위원회,
  GMP춘천지부, 팔로마 선교회
  베드로선교센터
- 문 의: 033)256-1260~1

장경동 목사 초청
춘천성시화 선교 대축제

지금 45개 주요도시와 세계 6개국 15개 도시에 창립되어 거룩한 창조도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성시화(聖市化)운동은 36년 전(1972년) 춘천에서 김준곤 목사님의 제창으로 시작된 복음화선교운동이다.

춘천홀리클럽은 성시운동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996년 6월 8일 최초로 창립된 선교운동체이다. 지금까지 춘천홀리클럽은 기도하는 운동체로서 이 도시를 위해 아래와 같이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다.

첫째, 국가의 융성과 이명박대통령, 한승수국무총리, 강원도와 김진선지사, 춘천시와 이광준시장,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을 위한 기도와 정치 · 경제 · 교육 · 문화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둘째, 교회와 선교단체의 성령 충만 부흥발전과 연합운동을 위하여, 민족복음화와 선교대국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셋째, 춘천이 성령의 영적에너지와 전력에너지를 전 세계로 공급하여 세계를 살리는 세계적 명품도시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넷째, 퇴폐풍조를 추방하고 범죄 없는 거룩하고 복된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춘천홀리클럽은 올해로 창립12주년을 맞이하고, 이를 기념하여 장경동 목사님을 특별강사로 모시고 성시화 선교축제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무엇보다 이번 선교축제는 춘천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탁구대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춘천시민들과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춘천을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 일에 협력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강사: 장경동 목사(대전중문교회)
※일시: 2008년 6월 9일(월)~11일(수)
※장소: 순복음춘천교회(만천리, 253-2741)
※문의: 사무국장 011-370-4702

[글. 춘천홀리클럽회장 이 학 규 장로]



시간 · 일자	6/9(월)	6/10(화)	6/11(수)	특별강사
05:00~06:30		새벽기도회	새벽기도회	장경동 목사
10:30~12:00		성시운동 포럼	말씀 잔치	장경동 목사
13:00~		탁구대회	탁구대회	
19:30~21:30	기념성회	성령대부흥회	성령대부흥회	장경동 목사

※탁구대회 복식단식게임 신청: 성시본부 256-1260,
사무국장 011-370-4702
체육분과위원장 최계천장로 016-366-0668
※신청마감: 6월 5일(목) 17:00 /
대표자모임: 6월 7일 14:00 순복음춘천교회 교육관

(※교회에서는 버스차량 협조로 성도들의 참석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회 때마다 광고해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화여, 세계를 향하여 날아오르라!

- 성시화는 고통 받는 한국백성의 눈을 바라보는 것

부산성시화운동본부를 섬기고 계시는 유임근 목사(사무국장) 편입니다

[취재. 정재호 / 사진. 김미경]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미국교회 다음 2번째로 해외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교회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복음이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이 있다. 경상도지역은 복음화율이 7%미만으로 알려져 있고, 그중에서도 부산은 통일교와 신앙촌 등 이단종교의 발흥지이며 본부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부산. 세계를 향하여 비상하는 부산을 꿈꾸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뛰고 있는 유임근 사무국장. 그가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자.

부산성시화운동본부를 섬기시게 된 과정은?

2006년에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준비하는 기도운동체인 'Again 1907'과 함께 부산 청년들을 일깨우기 위한 기도집회를 벡스코컨벤션홀에서 개최한 적이 있다. 당시 부산에서 청년들 1,000명이상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때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10,000명이상의 청년들이 밤새도록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 기도하였다. 당시 나는 내 뜻과는 상관없이 기도팀장이 되어 섬겼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부산성시화운동본부장이신 정필도 목사님(수영로교회)께서 사무국장으로 일해 달라고 요청하셨다.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파송 받아 잠시 목사안수 때문에 한국에 머물고 있던 나에게는 전혀 뜻밖의 제안이었다. 당시 부산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없었다. 다만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헌신한 것뿐이다. 뜨거운 부산사랑으로 부산복음화에 헌신하게 된 정필도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게 되었다.

성시화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시화를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가?

성시화는 고통 받는 한국 백성들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오래전에 성장과정의 깊은 상처로 인해 어떻게 목회자가 되어 사역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가득 차 울부짖는 내 눈을 보고 계셨다. 예수님의 눈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함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또 서로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마음을,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수님은 이때 "성도의 눈을 바라보는 목회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이후 이상하게도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형편을 깨닫게 되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성시화란 고통 받는 백성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백성들의 필요에 응답으로 일어나는 역사라고 생각한다. 성시화를 위한 지름길은 없다. 다만 지역교회가 하나 됨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보다 강력한 권능으로 역사하신다고 생각한다.

성시화는 교회연합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연합은 왜 중요하며 효과적인 연합운동을 전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합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다. 연합을 모이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한다. 연합은 모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오히려 모이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연합운동은 작은 단체들을 허물어뜨리고 더 큰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핏줄과도 같은 작은 단체들이 잘 살아나기 위해 가끔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작은 소연합체가 잘 살아야 큰 연합체가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은 꼭 필요하다. 연합이 가능해지면 가장 큰 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단들이 발을 못 붙이게 된다.** 이단들이 발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와 교회, 목회자와 목회자가 서로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연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몰몬교는 미국의 유타주에서 발흥했는데 놀랍게도 유타주에는 동서남북으로 큰 교회들이 있다. 그러나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이단이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부산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부산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부산성시화운동의 전개방향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성시화운동는 교회와 도시, 운동과 문화 사이에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시화운동을 통하여 예배당을 넘어 도시 전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를 시민들의 생활 영역 구석구석에 스며들게 하여 체질화해야 한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소금의 사명은 말없이 녹아지는 사명이라면 빛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했던 에피소드가 있다. 얼마 전(5월11일) 성령강림절에 해운대에서 15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해운대집회를 위해서는 구청장의 허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청장님을 찾아뵈었다. 그런데 팔관회에서 5월 12일 음력 4월초파일에 불교TV 10주년 기념 "세계연꽃축제"를 계획하고 해운대 사용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구청장님은 작년에 이 시기에 기독교에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계획이 있을 것이라며 허락을 보류했다는 것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구청장님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작년 해운대집회시 부산기독교계가 철저히 지역주민들을 섬겼기 때문에 맺은 열매라고 할 수 있다(작년 해운대 20만명 집회시, 도시락대신 지역식당이용하기, 휴지한조각 남기지않기운동 등을 전개함).

부산 땅에 부흥의 역사를 가능케 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사역이든지 부흥의 중심에는 반드시 헌신된 리더가 있게 마련이다. 부산성시화운동이 힘 있게 전개될 수 있는 것은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헌신적인 후원 그리고 호산나교회 최홍준 목사님과 같은 부산교계의 지도자들의 열정적인 협력과 참여가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필도 목사님은 사람을 한번 믿으시면 끝까지 밀어주신다. **또한 재무구조가 튼튼하다.** 물질적 지원이 없다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흥운동은 바로 기도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친교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무명의 목회자 30여명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기도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 기도운동에 수많은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성시화운동을 섬기는 동역자들을 위해 한 말씀 주신다면?



현재 성시화운동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도 있다. 지역은 넓어지는데 각 지역의 성시화운동 주체세력이 공감할 수 있는 성시화운동의 정확한 목표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많은 기도와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모든 도시에서 적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통된 목표가 합의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아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성시화운동을 오랫동안 섬기다가 보면 경험에서 오는 선입견이 생기게 마련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시화운동은 항상 나로부터 시작되는 운동이다.** 내가 바로 성시화운동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실체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시화운동은 공허한 구호로 끝나게 될 것이다. 성시화를 이루어 가는 길은 쉽지 않다. 우리는 성시화의 고장인 춘천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함께 격려하며 성시화 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나아가자!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글과 함께 복음을 소개하는 GLM

세계문맹자교육선교회(Global Literacy Mission)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문맹퇴치사업에 가장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뽑아 매년 문맹퇴치 공로상인 세종대왕상을 수상하고 있다. 1989년 6월 한국정부의 제의에 따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제정, 1990년부터 대상자를 뽑아 문맹퇴치의 날인 매년 9월 8일에 수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3.1 운동 당시 민족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문맹퇴치운동을 매우 활발하게 전개하였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동안 교육의 발전과 높은 교육열로 인해 문맹률이 매우 낮은 수준(약 5%)이지만 세계인구의 약 55%가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문맹자들이다. 이들을 위해 글을 가르치는 일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단체가 있다. 바로 '세계문맹자교육선교회' 이다.



라오스어 · 한국어 기초독본

설립 배경과 비전(사명)

세계문맹자교육선교회(GLM)는 1950년부터 1965년(15년간)까지 대구 · 경북지역에서 사역하였던 미국 장로교 파송 한국 선교사 故 Dr. Robert Rice 목사와 故 대천덕 신부(예수원)에 의해 설립되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꾸준히 번역되어 세계 언어 인구의 95%가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인구의 약 55%가 글을 못 읽는 문맹자들이다. 이들을 찾아가 글을 가르쳐 문맹의 굴레에서 벗어나 문자정보를 터득케 하고 더 나아가 성경을 읽게 하여 하나님의 인간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선교비전의 성경적 근거

예수님께서 공적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이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눈먼 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눌린 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글을 읽을 줄 몰라 정보화시대인 현대의 문자정보를 해독하지 못하는 문맹자들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말씀하셨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세계 도처의 눈먼 자 글을 못 읽는 자, 복음에 눈먼 자, 가난한 자, 눌린 자들을 찾아가 그들이 문맹과 가난과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 구원 받게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세계문맹자교육선교회의 목적과 실행

이 선교단체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1)세계 각국의 문맹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기초독본(primer)의 개발, 2) 문맹자 교육선교를 위한 현지인 지도자 교육 훈련, 3) 해외 한국 선교사들에게 현지의 문맹자 교육 선교에 관한 정보제공이다.

이를 위한 실행계획(2000~2012)으로는 첫째, '문맹자 교육선교' 의 전문요원 양성을 위해 국제본부 LEII(미국 오클라호마 털사에 소재)의 교육훈련과정(ILTT)에 인력을 파견(목표:24명). 둘째, 문맹자 기초독본(Bible Content Primer)의 개발(목표:12개국 언어), 셋째, 국내외 문맹자 교육선교 지도자 교육 · 훈련(TTW)(목표:1,000명), 넷째, 각 교단의 선교사교육훈련원(현재14개소)에 문맹자 교육 선교에 관한 정보 및 방법 제공(목표:14개소). 다섯째,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및 선교(목표:1,000명), 여섯째, 국내의 농촌 · 도서 지역의 중년 및 고령 문맹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 교육 및 선교(목표:200개 지역)이다.

GLM 교육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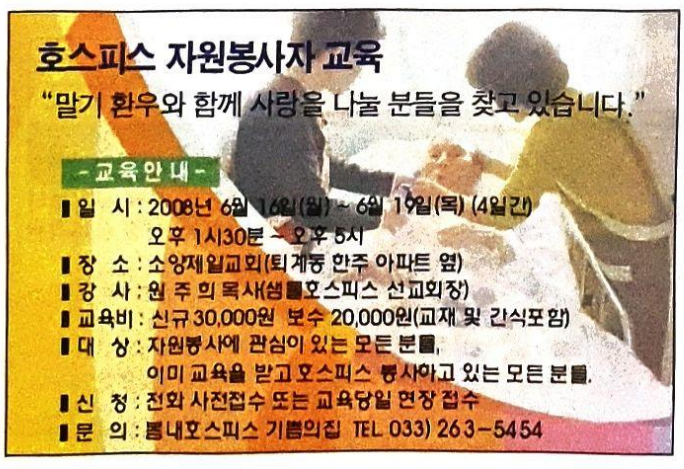
다양한 언어교육의 원리가 적용된 교재를 사용하고, 하루 1과 1시간 교육하여 문맹자가 그날 배운 내용을 그 즉시 읽을 수 있게 한다. 교재는 1,2권 총 60과로 되어 있으며 제12과부터 복음과 성경내용을 소개 하고 있고 「창세기~계시록」을 26개의 짧은 스토리로 만들어 읽을 수 있게 하였다.

지금까지 세계문맹자교육선교회는 한국어, 스리랑카의 타밀어와 싱할라어, 버마의 버미어, 알바니아어, 중국어, 몽골어, 카자흐스탄의 카작어, 인도의 매이털리어, 베트남어, 태국의 라후어, 라오스어 등의 기초독본을 개발하였다.


김 남 현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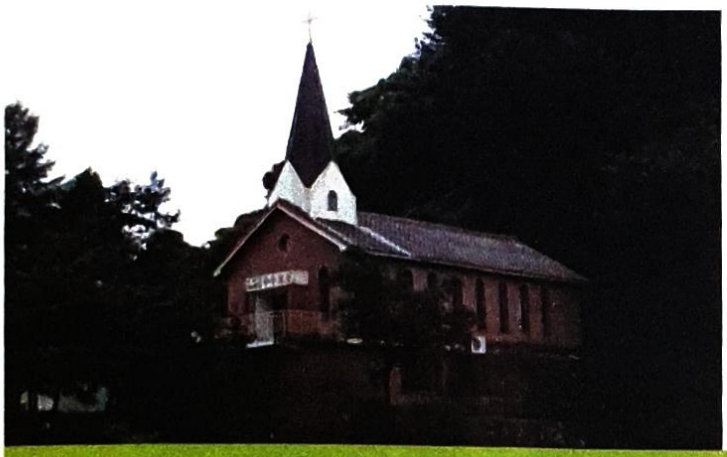
※현재 세계문맹자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경영학 박사 김남현 선교사는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경영대학장 및 경영대학원장을 역임하였고, 1998년부터 자비량으로 세계문맹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2005년 문맹자 교육선교의 국제기구인 LEI (LIteracy & Evangelism International)의 아시아 대표에 취임한 후 아시아센터 사무실을 베드로선교문화센터 5층에 두고 거처를 선교의 도시 춘천으로 옮기면서 선교적 지경이 더욱 넓혀졌다고 고백하고 있다. 은퇴 후 그는 배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라오스, 중국, 인도, 몽골... 등을 오가며 문맹자들에게 글과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최근 크리스천 리더십 모델을 새로이 개발하여 필요한 곳에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GLM 사무실: 02)485-5101 / http://www.glmkr.org http://cafe.daum.net/glmkr 016-609-0695]
[LEI, Asia 사무실: 019-532-7720, 033-256-7848/ nhk1101@hanmail.net]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작은 알프스 추곡 이야기

추곡교회는 1972년 5월에 창립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부흥으로 보답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행복으로 여기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교회를 표방하는 아름다운 교회이다. 13년 전 이곳에 부임한 사랑과 섬김의 종, 이종서 목사 이래 내실 있는 성장과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추곡교회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추곡교회(이종서 목사)편입니다

강원도 신비의 약수로 유명한 추곡지역은 오래전부터 행정구역상 춘천의 일부로 편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의외로 그리 많지 않다. 13년 전 이종서 목사(당시 전도사)가 추곡교회로 부임하던 무렵에는 전임지인 춘천에서 추곡지역까지 자가용으로 2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한다. 이는 지금의 춘천과 서울 간 거리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이다. 구불구불한 도로와 비포장의 험한 산세로 겨울에는 인적이 드물 정도였던 이곳은 이 목사가 부임하기 일주일 전, 추곡터널의 개통으로 지금은 춘천에서 불과 30여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교우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이종서 목사는 누구일까. 이 목사는 경기도 화성이 고향이다. 4대째 신앙의 명문가문에서 모태신앙이자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일가친척 가운데 목회자, 장로, 권사가 수두룩한 신앙배경으로 초등학교 5학년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주의 종의 길을 걷기로 서원한다. 신학수업을 마친 후 만리현교회를 거쳐 춘천 소양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던 이 목사는 농촌공동체 목회에 뜻을 두고 추곡교회에서 장기목회로 헌신하게 되었다.

추곡과 추곡교회

추곡교회 인근은 이른바 수몰지역이다. 소양댐의 건설로 말미암아 많은 마을이 물에 잠겼다. 오랜 역사와 꽤 많은 가구 수를 자랑하던 추곡지역은 변변한 중심 읍내도 없이 마을은 사라져 버리고 소신 있게 마을을 지키고자한 80여 가구의 주민들만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남게 되었다. 1995년도 11월에 부임한 이 목사의 당면과제는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었다. 이 목사는 낮아진 마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과 같은 성육신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썼다. 그러한 결실일까? 지난 4-5년 전부터는 눈에 띄게 좋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다. 추곡지역은 물론이고, 입소문을 통해 양구와 화천, 춘천지역의 성도들이 부쩍 늘었다. 특히 1시간 이상 거리의 청평사 인근지역에서도 여러 가정들이 출석하고 있다. 그들의 수고는 하나님도 인정하실 것이라고 이 목사는 설명한다. 왜냐하면 매주 청평사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소양댐까지 나와서 다시 차량으로 이동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사역

추곡교회는 춘천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지역 전역에 널리 알려진 「추곡이야기」와 「산골음악회」, 「장애우 봉사」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추곡이야기」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에 각각 15일씩 열리는 일종의 성경학교 캠프이다. 다만 성경뿐만 아니라 지, 덕, 체, 영성을 모두 훈련하기 위한 캠프형식의 전인적 훈련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1회기 당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어학연수를 포함하여 캄보디아와 필리핀, 서울 등 주요도시 투어(Tour)가 이루어졌다. 「추곡여름이야기」, 「추곡겨울이야기」에는 기독교대학인 '한동대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 해마다 15명 전후의 한동대 학생들, 지금까지 70여 명의 대학생들이 이 뜻있는 일을 위하여 자원봉사로 수고하였다. 이렇게 맺어진 대학생들은 기존 교우들과 함께 「추사모」(추곡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에 편성되고, 매년 8월 15일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진 추곡인들과 함께 의미 있는 1박 모임을 갖게 된다고 한다. 「산골음악회」는 매년 5월경에 개최되는데 나름대로 내노라하는 프로 성악가들과 바이올린, 첼로연주자들이 참여한다. 그림 같은 추곡의 비경에 더하여 4년째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춘천소양교회와 자매결연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장애우 봉사」는 함께 만찬을 나누고 산책,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일 년에 수차례씩 진행된다. 최근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봉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매월 1회씩 열리는 미용프로그램은 뜻있는 미용사들의 동참 속에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다.



끝나지 않는 꿈

이종서 목사와 추곡교회의 꿈은 「신앙공동체 건설」과 「대안학교」이다. 이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못자리판 역할을 하는 생활공동체를 꿈꾼다. 또한 교회공동체가 후원하는 성서적 대안학교에 대한 꿈도 매일의 기도제목에서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넉넉한 은혜로 한 번도 이 길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이종서 목사와 이강선 사모, 주영(15), 송영(13), 그리고 추곡교회 공동체가 함께 일궈가는 그 거룩한 꿈을 기대해 보자.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교회 단신 사랑의 음악회

춘천제일감리교회(담임목사:원종국)와 세경스낵이 주최한 사랑의 음악회가 5월 10일(토) 오후4시 본 교회 예배당에서 열렸다. 교동 주변의 어르신들과 교회에 새로 나온 새신자들을 초청하여 함께한 이번 행사는 경로잔치를 문화적으로 한 차원 더 높이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되었다.



www.seeds21.co.kr
MOS
95%의 합격률
씨앗은 100% 합격률에 도전합니다.
Microsoft Office Specialist Authorized Testing Center
MOS 공식 시험센터
MOS 지정 교육기관
MOS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기사
컴퓨터활용능력 / 워드프로세서 / OA과정
웹디자인 / 그래픽디자인 / 동영상편집
홈페이지 제작
SCI 씨앗컴퓨터학원
☎ 033) 252-0179 춘천시 후평3동 891-11 (동아목욕탕 3층)

| 영혼의 양식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딤후4:3~5



이은준 목사 (동산순복음교회)

모처럼 서울에서 동기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이면 목회 중에 일어난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데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요즘 목회가 힘들어 예전 같지 않아. 목회를 평탄하게 하려면 교인들 눈치를 살피고 잘못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이야기 못하고 기도나 해줘야 해" 라고 했습니다. 만약 잘못을 지적해주면 다른 교회로 떠나버리기에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사도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전하면서 오늘의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 바른 교훈받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딤후 4:3)" 요즘은 어른들이 자라나는 신세대 아이들에게 잘못을 책망하면 도리어 봉변을 당합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잘못을 지적했다간 촛불시위당하고 댓글에 언어폭행 당하는 시대입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학생의 잘못을 야단치면 학부모가 달려와서 선생님을 폭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잘못을 목회자가 지적하면 대적하든지 아니면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매가 돌아오던지 징계가 있습니다. 사랑의 매가 약이 되고 치료가 됩니다. 우리 춘천에도 이 교회 저 교회 귀동냥 다니는 철새교인이 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귀에 맞는 목사님의 말씀을 찾아다닙니다. 귀가 가려워 그 가려운 귀를 시원하게 긁어줄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변화시키거나 바꾸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은 자기의 뜻을 우상에게 빌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샤머니즘 믿음인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사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둘째 : 진리에서 떠나 돌이켜 허탄한데 마음을 둔다고 했습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딤후 4:4)" 요즘은 자고나면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정보시대입니다. 이 정보를 잘 이용하면 돈도 벌고 출세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크고 바른 정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정보만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지혜를 발견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 IT문화 발달로 안방으로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옵니다.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말하는 것이 마귀의 감언이설에 잡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과 귀 입에 절제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 모든 일에 근신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 4:5)." 여기서 근신(勤愼) 하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근신하라는 징계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고 서두르지 맙시다. 이번에 정부에서도 쇠고기 협상을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캠프데이비드 숙박료를 제대로 치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중국은 지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종말을 향하여 가는 시대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문 앞에 오셔서 노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전도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다할 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사색의 장

사랑의 전화벨 소리

마 철 규 장로(춘천제일장로교회, 장로연합회장)

"거기가 춘천제일교회입니까?"
"예, 춘천제일교회입니다."
"마철규 선생님이란 분 혹 계시나요?"
"제가 마철규인데요. 누구십니까?"
"여기는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양희숙입니다."
"양희숙? 저는 전혀 모르는 분 같은데요..."
"혹시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상수교회를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 시 203회과 덕정병원에서 근무한 적 있습니다."
"70년 5월 다리 다친 아이를 업고 병원에 달려가셨던 일 기억하세요? 그 아이가 바로 저 양희숙입니다."
"아~ 기억하고말고요."

70년도 군생활 시절 상수교회 앞을 지나다 엉엉 울고 있는 어린소녀가 있었다. 앞집 담장이 무너지면서 소녀의 다리가 부러진 것이다. 소녀를 들쳐 업고 뛰어서 근처 헌병소로 가 엠블런스를 불렀다. 군인병원으로 옮겨 깁스를 하고 한 달 동안 소녀를 병원에 데려다 주며 치료를 받게 해주었다. 자칫 오래 방치해두었더라면 어린소녀는 평생 다리를 절게 될 수도 있었다는 의사의 말이다. 기억도 희미해져 잊고 있던 일이 한 통의 전화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38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은인인 나를 꼭 찾아보라는 어머니의 유언으로 인해 미국에서 전화, 인터넷 등 20여 군데 이상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찾았다고 한다.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이제야 인사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정말로 감사드린다며' 그녀도 흐느껴 울었고, 나또한 진한 감동과 감사로 눈시울을 붉혔다.

만약 38년 전 그날 울고 있는 아이를 그냥 지나쳤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섬김이 40년 세월 뒤에 이렇게 큰 기쁨을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나의 삶이 항상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나를 천국잔치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감사와 사랑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전화벨 같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철규(사진 왼쪽에서 2번째)

★독자 투고 사색의 장은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곳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방법 : hc1260@hanmail.net (기사투고) T. 256-1260-1 F. 033) 257-1260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DISC 행동 유형



CS강사. DISC강사 : 이 원 기 (늘사랑교회 집사)

DISC란

♣ 개인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 가치를 파악한다.
♣ 사람들은 서로 다른 행동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 사람들 간의 차이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다. 단지 다를 뿐이다.
♣ 현재 미국에서는 윌로우크릭교회의 빌하이벨스 목사님과 조지바나와 같은 교회 사역전문가들을 비롯해 유수한 교회들이 성도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이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교회, 단체, 기업체 등에서 세미나 또는 워크숍 시 DISC로 자신을 더 잘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자신의 발전과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문의: 010-3078-0179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2008 연합부흥성회

초청 강사 : 이 태 희 목사(서울 성복교회)

▶일 시: 6월 1일(주일) ~ 4일(수) 저녁 7시
▶장 소: 순복음춘천 교회 (만천리)
▶문 의: 교경협의회 사무실 252-1717



축복의 통로

북한 교회 재건에 헌신하는 김영창 장로(새중앙교회) 편입니다

에디슨은 하나의 발명을 위해 무려 9,999번의 실패를 했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실패야, 고맙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김영창 장로를 만나면서 실패도 재산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지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실패임을...

봉수교회 건축

통합측 남선교회가 주축이 되어 건립하고 있는 북한 봉수교회 건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건축위원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김영창 장로. 그는 지난 2006년 6월 평양을 직접 방문하고, 그 이후로 수차례 평양을 오가며 바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평양 방문 시 조기련 관계자들에게 할렐루야 삼창을 시켜서 일약 유명인사가 되기도 하였단다. 현재 이레식품을 경영하고 있는 그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실패와 난관을 거쳐 왔다. 그러나 김 장로는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감사로 볼 수 있는 축복 DNA가 흐르고 있었다.

만남의 축복

전남 장성 출신으로 워낙 성격이 급하고 거친 탓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세상적인 조류에 휩싸였을 거라고 그 스스로 말한다. 70년대 초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면서 주위에 권고로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난 것 다음으로 아내를 만난 것이 자신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고백한다. 주위에 김 장로의 동료들이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장로인 김 장로가 부럽다고 입을 모아 칭찬하는 것으로 보아 김 장로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가를 엿볼 수 있었다. 슬하에 2남 1녀의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한다.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축복의 씨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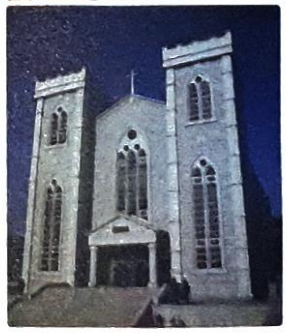
4년간의 사우디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화공약품사업을 친구와 시작했다. 그러나 물질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시련이었다. 밤만 되면 괴로워 술을 마시고 힘들어 할 때도 아내는 여전히 남편을 지지하며 격려해주었단다. 당시에는 목사님이 가져다 준 성미로 생활할 정도로 너무 어려웠다. 그런데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작정헌금을 하였다. 당연히 건축헌금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김 장로는 집사 직분자 수대로(본인,아내,어머니) 백만 원씩 300만원을 작정하였다. 때마침 건축대금으로 받은 이음 300만원이 생겼다. 가족들을 불러 모아 가족회의를 열고, 그는 "300만원으로 우리 가정의 가난을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지금 건축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가족의 만장일치로 마지막 남은 300만원 어음을 믿음으로 드렸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축복의 씨앗을 심었던 김 장로의 믿음이 진한 감동을 준다.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으신 사업장, 이레식품

아무런 연고 없던 춘천에 빚을 받으러 내려왔다가 빚 대신 육가공업체를 인수하게 되면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인수받은 육가공업체는 수많은 채무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서 3여년을 힘겹게 빚 청산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회사를 정리하고 개인으로 식품허가를 받기 위해 도청으로 가는 길에 업체이름을 여호와 이레에서 따서 '이레식품'으로 정하였다. 허가받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다. 허가 신청 바로 그 다음날로 허가증을 획득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드문 경우라고 한다.

97년경에 시작된 이레식품을 통해 육가공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IMF의 위기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다. 사업은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축복받는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 주셔야 되고, 물질도 하나님이 이끄셔야 한다. 김 장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술회한다.





IMF로 어려운 때, 909평의 땅을 하나님께 드려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얼마 후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땅을 매입하라는 주위의 권고로 그 땅의 평수를 알아보았더니 1818평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땅의 꼭 두 배 되는 땅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고 은행 대출로 그 땅을 매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김 장로는 힘주어 말한다.

교회개척과 선교의 꿈

평소 본이 되는 장로를 만나지 못하여 장로 되기를 꺼려했다는 김 장로. 그는 성광교회 이진배 장로의 소개를 통해 통합측 남선교회 회장 김용덕 장로와 홍희천 장로를 만나게 되면서 평양 봉수교회 건축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김 장로는 다시 한 번 만남의 축복을 강조하며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됨을 말한다. 앞으로 몸담고 있는 새중앙교회를 건축하는 일과 북한 지역과 선교지에 단독으로 7개 교회를 개척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개 나라에 교회 혹은 선교사가 쉴 수 있는 선교센터를 세우는 꿈을 꾸고 있다.

선교에 남다른 열정을 지닌 김 장로는 북한은 선교의 땅 끝이라고 강조하며 북한 선교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김 장로의 소망대로 북한 곳곳의 복음의 센터가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춘천 도성에 좋은 모델이 되는 장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진행 정재호 · 취재 최영조 · 사진 김미경]

'우리하나' 프로젝트

-단 1만원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 보세요

북한은 수해로 흉년이 되고, 북핵문제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끊어지자 북한 주민의 식량난이 가중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입니다. 성경은 "네 원수가 주리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가르치는데, 하물며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애를 강조하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님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 **1만원의 후원은** 북한 동포 1명이 한 달 동안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한 가정이 약5만원 정도로 1달을 생활).

▶ **'우리하나' 프로젝트는** 한민족복지재단 주관 하에 북한가정사역연구소, 아름다운 동행, 크리스챤투데이, 브이코아, 세이하쿠닷컴이 함께하는 북한 동포에게 식량을 보내는 범국민적인 프로젝트입니다.

※한민족복지재단 춘천지부(이사장:김주란목사)는 북한동포의 인권회복과 북한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역소개와 후원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해주세요.(사무국: 011-663-3695, 010-2030-815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신사참배회개와 금강산기독교수양관 복원을 위한 "세이레 평화기도회"

▮일 시 : 2008년 6월 15일~7월 5일

▮주 최 : 평화한국

▮공동주관 : 춘천성시화운동 · 기독교연합회 통일위원회

2008년은 남북한 독립정부수립 60주년 되는 해이며, 신사참배 결의 7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신사참배를 회개하는 기도회를 열고자 합니다. 6월 15일~21일 동안 새벽기도회나 QT시간 혹은 정한시간에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이 민족분단의 씨앗이었던 영적인 뿌리를 정결하게 씻어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역사적 상징성을 갖는 최초의 기독교수양관이었던 '금강산기독교수양관' 복원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세이레평화기도회에 참여하고자 원하시는 교회와 개인은 문의바랍니다.
(문의:춘천성시본부256-1260~1, 010-2030-8150)

※참여하는 교회와 개인에게 세이레 평화기도회 기도책자를 제공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山
수리봉


시내에서 본 수리봉

깊은 속을 가진 산

"우리 곁에 있는 산" 기사가 이번 달로 12회를 맞이했다. 1년여에 걸쳐 춘천에서 이름난 산을 거의 다 소개한 듯싶다. 그럼에도 이 글이 계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하게 된다. 말하자면 '정체성 찾기'라고 해야 할까. 성시신문에 이와 같은 글을 싣고자 한 것은 춘천에 대한 사랑이고 관심이었다. 춘천에 살면서 춘천을 알지 못하는 일이 많아 보여서다. 그렇다고 하면 춘천을 둘러싸고 있는 산 중에 이름도 잘 모르는 산들이 있다. 그런 산들을 찾아서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되어 이 글을 계속하려고 한다. 이번 호에 실린 수리봉이 그래서 새로 발견된 소중한 산이다.

수리봉 개요

수리봉은 춘천에서 홍천으로 나가는 첫 번째 고개인 원창고개 마루턱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 끝부분에 있는 봉우리다. 동산면 원창리와 동내면 사암리 경계에 있는 높이 645m의 산이다. 그런데 그 존재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 아마 동쪽으로 대룡산과 서쪽으로 금병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두 산을 이어주는 능선 정도로 이해하는 듯하다. 시내에서 바라보면 생각보다 대룡산은 원창고개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 그 사이에 긴 능선을 형성한 것이 수리봉이다.

사실 춘천에는 수리봉이 두 개이다. 이곳 말고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와 신북면 발산리 경계에 있는 높이 654m의 산을 수리봉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즉 춘천댐과 배후령을 잇는 북쪽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물 수(水)자, 날카로울 이(利)자를 쓰고 또 지킬 수(守)자와 다스릴 리(理)자를 쓰던 수리봉은 머리라는 뜻이고 수리가 매봉, 응봉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쓰이는 곳이 전국적으로 여러 곳이다.

등산로



수리봉 등산은 수리봉 자체 등산보다 주로 대룡산과 연계해서 이용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지도에 나와 있듯이 수리봉 자체를 목적으로 순환해서 등산해 보는 것도 좋다. 대룡산과 연계해서 능선만 타고 간다면 수리봉의 깊은 매력을 놓치는 결과가 된다.

먼저 수리봉의 등산로는 코스 1과 그 역순으로 하는 코스 2로 나눌 수 있는데, 거의 코스 1을 주 등산로로 잡는 것이 보다 수월하게 등산할 수 있다.



등산로 입구는 원창고개를 넘자마자 좌측 표지판을 끼고 오르면 고속도로와 나란히 오르는 길이 있다. 그리로 10분 정도 오르면 수리봉 안내판이 보이는 들머리가 나온다. 요즘 그곳에 택지 개발을 해 놓아서 오르는 길을 찾기 쉽지 않은데, 안내판이 보이는 길을 계속 올라 첫 번째 택지개발터 왼편에 산 오르는 나무계단이 보인다. 이곳으로 5분 정도 오르면 고속도로 만드느라 생긴 절벽 위의 길을 잠깐 걷는데, 그때가 춘천 전경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산 정상에서는 나무에 시야가 가려 거의 조망할 수 없다.

또 하나의 들머리가 있는데, 원창고개에서 내려서면 좌측으로 원창4리 버스정거장이 있고 매내미 마을 입구로 난 길이 있다. 그 길을 따라 마을입구에 다다르면 좌측에 가옥 옆 잣나무 숲으로 오르는 조그만 나무계단을 만난다. 그리로 10분 정도 오르면 수리봉으로 오르는 능선길을 만난다. 여기서 앞에 소개한 길과 만난다. 시간은 매내미 길로 오르는 것이 10분 정도 절약된다.



능선을 타고 오를 때에는 어려움 없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다. 지도에 보면 윤씨묘라는 지명을 볼 수 있는데, 이 코스로 내려올 때는 이 묘지가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된다. 윤씨묘를 지나자마자 우측으로 난 길을 따라 하산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주의하지 않고 내려온 길을 따라 직진하게 되면 원동골 원창저수지로 내려가게 된다. 주로 이용하는 등산로가 아니니 주의해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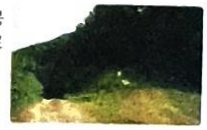
정상에서 대룡산으로 이어지는 새골삼거리(군부대삼거리)까지는 605m의 산을 우회하게 되는데 강원도청 공무원복지조림지라는 표지석에서 알 수 있듯이 능선 좌우로 낙엽송과 잣나무가 울창하게 서있다. 나무를 관리하려는 듯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따라서 삼거리까지 가면 된다.





◀ 삼거리에서 만나는 안내판이다. 실제는 사암리에서 오르는 길까지 해서 삼거리가 된다. 그러나 실제는 사거리다. 수리봉 등산로는 여기서 기리키지 않는 또 다른 방향, 세거리(세계기도원)로 가면 된다.

▶ 이 사진의 오른편 길은 수리봉으로 오르는 길이고 왼편으로 난 길을 따라 내려가면 된다.



수리봉의 매력

1. 연계 등산

금병산으로 해서 대룡산으로 이어지는 등산이나 대룡산으로 해서 금병산으로 이어지는 능선 등산이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수리봉은 원창고개(300m)로부터 시작하기에 능선 표고차가 크지 않고 특별히 험한 곳도 없어서 편안하게 산행할 수 있다.

2. 깊은 계곡



춘천 쪽에서 바라본 수리봉은 높지 않은 펑퍼짐한 모습을 하고 있고 전망도 없어서 그리 주목받지 못한 산이다. 그런데 수리봉은 정상과 비슷한 높이의 봉이 2개나 더 있다. 실제는 600m급의 봉우리 3개로 된 산이다. 다른 두 봉우리는 이름이 없다. 등산로를 따라 세거리로 내려가면 646m의 봉의 뒷면을 볼 수 있는데, 직벽으로 되어 있어서 마주한 응봉(759m)과 더불어 깊은 계곡을 만들고 있다. 이 협곡은 좌우로 막아선 암벽과 울창한 수림이 맑은 계류와 어울려 경관이 빼어나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산세가 깨끗하고 오염이 되지 않아 호젓한 산행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 646m봉의 뒷면. 계곡에서 바라본 모습. 600m급의 산의 위용을 볼 수 있다.



◀ 등산로 아래에 위치한 원창저수지. 왼쪽으로 멀리 보이는 산이 응봉(758m)이다. 응봉은 강원대학교 학술림으로 연중 통제되는 곳이다.

[편집위원 고 재 민]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 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 춘천점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예 스 비
에스비 브라운상가 이전 오픈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을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머스 극장 입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예수 안에서 본 예술



최명룡作 동심 / 대리석 50×20×65cm/ 1996년

두 어린이의 모습이 대리석에 곱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시선은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는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듯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부르고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작품 〈동심〉은 우리를 말씀으로 안내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답을 얻고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그 말씀은 어른 된 모든 이들에게 항상 놀람과 자성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2-3) 또한 이 작품을 보면서 남북한도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였는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해봅니다.

[편집위원 이 관 형]

우린 어디에서 왔습네까

난 386 전후세대
58년 전 한국전쟁
죽음의 피발이 되었다던
남남북녀의 상흔
실선처럼 뚫린
S라인의 한반도 허리
군상처럼 늘어선
해금강 암 바위 길
말라붙은 이방의 땅
백로 빛 검정구두 빛
질은 분단 빛 허리라인
북녘 땅 한복 여인
북녀: "동무! 어디에서 왔습네까"
남남: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왔습니다"
북녀: "몇 KW 생산 하십네까?"
남남: "에-에"
난 386 전후세대
서툰 이별 공식 58년
금강산 해금강 길
우린 어디에서 왔습네까?

- 시. 김 창 기 권사(춘천한길교회)

좌충우돌 건강이야기 6

장바이러스 대처법



고 석 연 (가정의학과)

수일 전 몽고에 단기선교를 나간 자매에게서 긴급기도편지를 받았다. 장바이러스 감염이 몽고 전역에 확산되어 6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고한다. 정부에서는 모든 집회와 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고, 정상적인 예배가 어려워졌다고 했다. 급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고 장바이러스가 어떤 질환을 일으키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짧지만 설명을 해주고 전화를 끊었다.

보통 열이 심하게 나면서 설사를 하면 장바이러스 질환을 의심한다. 일반 식중독과의 차이점은 상한 음식을 섭취한 사실이 없고, 감기처럼 목에도 염증이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족구병, 포진성구협염, 급성출혈성결막염(아폴로 눈병) 등이 장바이러스 질환의 한 종류이다. 약간의 임상증상에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장바이러스 질환은 대개 위장증상 즉, 복통 구토 설사 등을 동반한다.

장바이러스는 대개 손을 통해서 입이나 호흡기 쪽으로 감염되는 질환이므로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성하지 않아서 흐르는 물에 손을 씻기 힘든 국가나 위생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국가들에서는 쉽게 전염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일은 몽고뿐만 아니라 선교현장 어느 곳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선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장바이러스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예방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손을 잘 씻으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전염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어디든지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장바이러스 질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세균성 질환이 아닌 바이러스 질환이다. 따라서 아직 치료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이러스처럼 병을 일으키고 일주일 정도면 우리 몸에서 나가기 때문에 병에 걸려 있는 동안 대증치료만 잘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대증치료라는 것은 증상을 치료한다는 말이다. 장바이러스는 고열과 설사 구토 등이 노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데, 열이 나면 해열제를 복용시키고, 설사나 구토는 이에 따른 약을 먹이면 된다. 그런데 열이 심할 때는 아무리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몸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해열제를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을 자주 먹여서 설사나 구토로 인한 수분 부족을 충분히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몸에 수분이 없으면 아무리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

설사약을 아무리 먹여도 설사가 멎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음식물이 염증이 생긴 장을 끊임없이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식물 선택이 중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 중에서는 미음이나 죽이 염증이 있는 장에 가장 무해하다. 그리고 설사를 계속할 때는 기름진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고기 이외의 기름진 음식 중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유제품이다. 유제품에는 유지방이 많기 때문에 우유, 요구르트, 치즈, 피자, 아이스크림 같은 유제품은 제한하여야 하며 의외로 두유나 콩국수에도 지방이 많으므로 이런 음식도 제한하여야 한다. 장바이러스 질환은 열과 구토 설사만 잘 관리하며 별 탈 없이 일주일 정도면 낫는 병이다. 약을 주어도 내리지 않는 열과 계속 되는 설사가 있을 때는 수분 섭취와 음식물 제한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순하지만 이러한 지식은 선교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몽고는 치즈, 우유, 양고기 같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소비하는 곳이다. 장바이러스 질환의 치료에 이런 음식물 제한과 우리나라의 죽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축복의 가정을 세우는 가정편지를 아시나요?



가정을 낳는 가정

무너지는 가정들

오늘날 이땅의 수많은 가정들이 부부의 이혼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미 부부의 이혼율이 40%를 넘어 50%를 향하고 있다. 결혼한 지 10년 이내의 젊은 부부의 이혼율이 전체 부부의 50%를 넘어섰는가 하면 60세가 넘은 어르신 부부의 이혼율도 10%를 점하면서 이혼은 더 이상 특정 연령대에 머물러 있지 않다. 서울 어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는 이미 자기들 부부는 자녀의 앞날과 주변의 눈총 때문에 부부가 한집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마음은 떠났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한 시대를 살아가는 부부들의 마음이 서로 갈리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즘엔 젊은 부부들의 출산율이 한 가정 당 평균1명으로 줄어들었다. OECD국가 중 최하위이다. 게다가 낙태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1년에 150만 명에 이르는가 하면 출생하는 아기수는 48만에 불과하다고 한다. 자살률 또한 제일 높다. 이 같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 땅의 가정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불순종의 현장이 되어버렸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인정하게 된다. 문제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넘어지고 이어서 사회도 붕괴되는 암담한 내일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왜 가정이 무너지는가?

이혼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0%는 성격차이를, 16%는 경제문제를 부부 이혼의 이유로 지적했다.

부부의 성격차이가 그들이 데이트 할 당시에는 자신이 갖지 못한 장점으로 비춰지면서 오히려 결혼을 촉진시키는 촉매역할을 했었던 사실을 모든 부부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 모든 부부의 문제는 자신과 다른 상대 배우자의 특징과 장점을 자신의 유익으로 연결시키려했던 그 이기심이 충족되지 못한데 따른 실망감과 서운함과 미운 감정 속에 숨어 있다. 모든 죄의 근본인 이 이기심의 죄가 바로 부부를 갈라서게 한 주범임을 고백한다.

사탄은 오늘도 이 땅의 가정들을 집중 공격하면서 부부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마음속의 이기심을 충동질한다. 그래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같은 사탄의 유혹에 자신도 모르게 넘어진 부부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 부부의 회복과 새로운 앞날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한다.

가정편지를 쓰게 된 이유

가정이 무너지면 그 가정들이 모여 세워진 교회와 사회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힘을 잃어버린다. 가정이야말로 교회와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이기 때문이다.

이 가정편지를 쓰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이 편지를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길 바라는 소망에서이다.

두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성령의 열매인 사랑하는 마음을 선물로 받아 그 성품이 변화되길 소망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최고의 사랑인 복음을 주어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이다.

가정편지 사역은 "가정을 낳는 가정"이란 단체에서 매일 아침 편지를 보내는 것이 주사역으로 하는데, 이 사역은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단체로 미국의 가정사역기관인 Family 2 Family와 동역하고 있다.

가정을 낳는 가정이란

변화 받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삶의 모범을 통해 이웃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낳는 가정재생산 사역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가정을 낳는 가정은 "가족의 밤 운동(Family Night Movement)"을 통해 가정이 작은 교회로 사역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약 5000여 가정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가정을 낳는 가정은 매일 아침 극동방송의 8개 네트워크를 통해 "가정을 낳는 가정" 프로그램을 발송하고 있으며 단행본 출판과 세미나, 교회방문 가정회복집회를 통해 이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가정을 낳는 가정"은 매일 아침 인터넷 가정편지를 회원들에게 발송한다. 부부관계, 자녀양육, 내면의 치유 등 가정과 관련된 모든 주제들이 가정편지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는 회원 여러분들의 공간이다.

[가정을 낳는 가정 홈페이지 : www.f2family.com
www.missionworld.co.kr]

예 향

꿈의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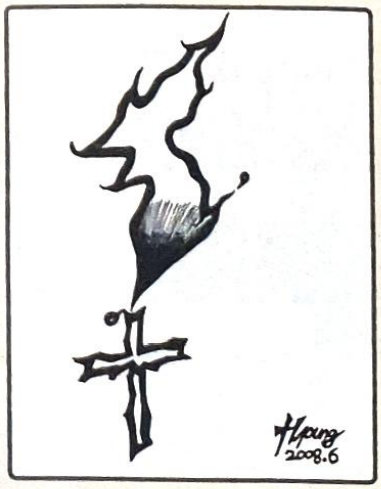
여의도순복음교회는 70만 명이 넘는 성도를 가진 세계 최대의 교회이다. 조용기 목사는 50년 전 천막을 치고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여의도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불가능한 꿈이었지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꿈의 성취를 맛볼 수 있었다.

오늘도 하나님은 꿈의 사람을 찾으신다. 엘리야의 갈과 영성을 엘리사가 전수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은퇴한 조용기 목사의 영성을 이어받을 사람을 찾으신다. 그 사람이 당신은 될 수 없는가.

[편집위원 최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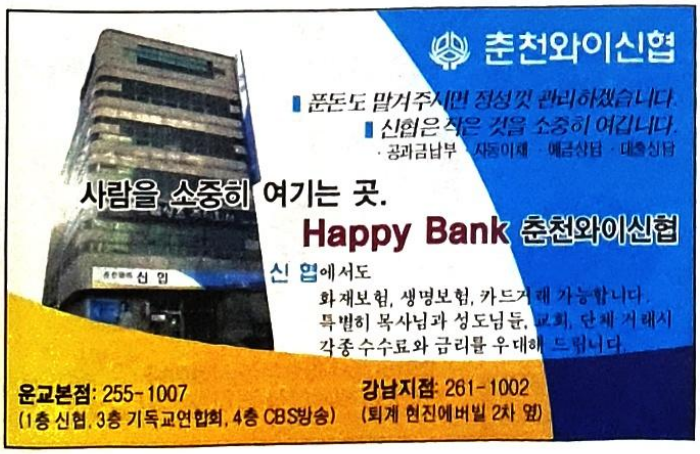
성 시 만 평

이 관 형
jysince93@hanmail.net



한반도에 십자가정신으로 평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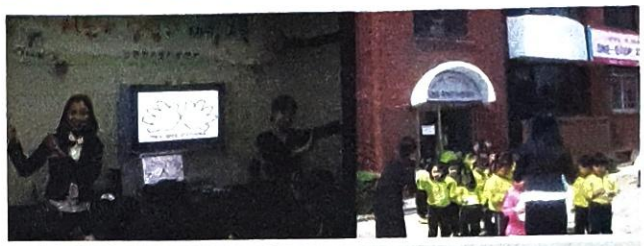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 영 조
편집 위원 : 조영춘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권기찬 고재만
김춘배 이관형 김미경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Y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당신은 소중합니다" ONE-STOP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세요

ONE-STOP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피해자는 경직된 몸과 마음으로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며 어렵게 첫 걸음을 한다.



ONE-STOP지원센터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24시간 상담사, 간호사, 경찰관이 상주 근무하면서 피해내용에 대한 세심한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와주고 응급치료, 산부인과 · 정신과 등 의료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속한 조치와 지원이 이뤄지는 곳이다. 또한, 조기 가해자 검거를 위한 신속한 증거물 채취와 피해자 조사가 진행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원스톱지원센터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은 물론 장소를 이동할 불편함 없이 단 한 번의 방문으로 피해자는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받게 된다. 때문에 기존 제기되던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 · 창피함도 적어지는 효과도 함께 나타난다.

ONE-STOP지원센터는 전국 15곳에 개소해 운영되고 있으며, 춘천에는 강원대학교 병원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ONE-STOP 지원센터가 개소한지 2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ONE-STOP 지원센터의 존재사실을 몰라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성폭력 · 가정폭력이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아 방문자가 한 명도 없는 밝은 내일을 간절히 소망하지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피해자가 홀로 음지에서 해결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고통 받고 있을 안타까운 경우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처음 두려움에 어렵게 발걸음을 했다가 ONE-STOP지원센터를 통해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받았다며 엷은 미소를 머금고 돌아서는 어느 피해자의 모습이 아련하다.





강원 여성 · 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란?

2006년 1월 17일부터 강원 여성 · 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가정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여성 등에게 의료, 상담, 수사, 법률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통합하여 24시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언제든지 센터방문이나 전화를 하면 여성경찰관이 24시간 피해 유형별로 편안한 상태에서 신속히 지원한다.

◐ **지원내용**

진술녹화실, 영상진료실, 원격지화상대질실, 피해자안정실 등을 갖추고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해준다.

▶의료지원 : 산부인과, 응급의학과의 일차적인 진료 외 후유증 극복을 위한 정신과적 진료 가능(진료비용 국가지원)

▶상담지원 : 심리 안정을 위한 피해 유형별 전문적 상담 실시

▶수사지원 : 여경조사관의 진술녹화 등 과학적 수사와 사건 직후의 증거수집으로 가해자 조기 검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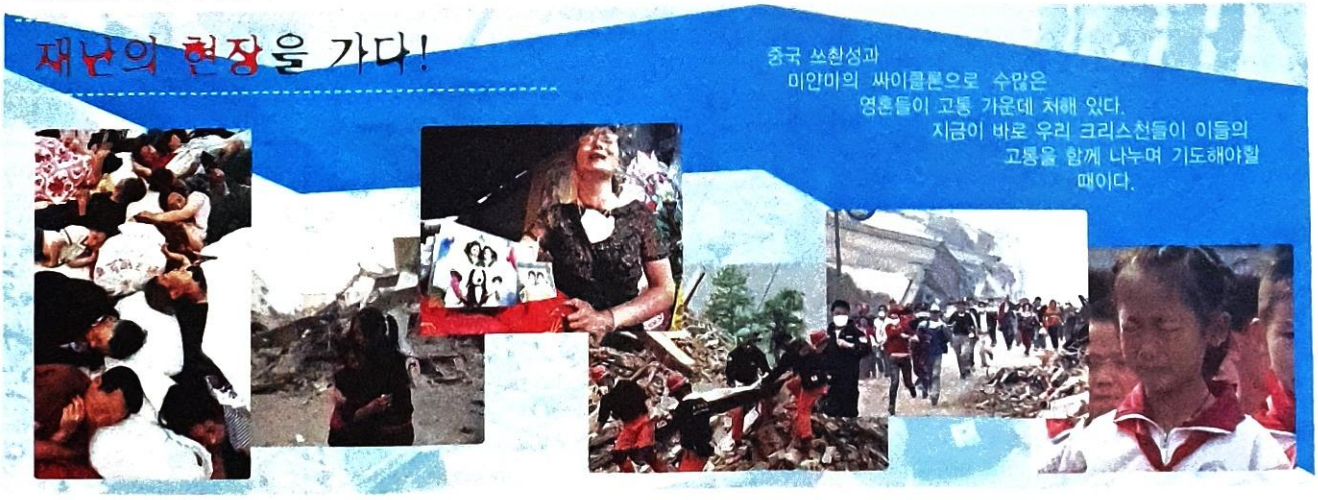
▶법률지원 : 변호사의 수준 높은 무료 법률 자문

▶성폭력예방교육 : 아울러 금년부터는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따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 성폭력 위기상황대처 및 예방교육 해부학적 인형을 통한 성폭력 상황 대처요령 교육 아동안전지킴이집 안내 및 홍보 센터 의료장비 및 진술녹화실 등 견학

◐ **연락처** : 243- 8117, 244-8117 강원 ONE-STOP 지원센터 (강원대학교병원 별관 1층)

[글. 강원 여성 · 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제공]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시험없이 취득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등 록 : 선착순 접수함 본 자격증을 취득 하시면 재가복지, 가정파견센터 노인요양원 사실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시작 : 현재 접수중(나이, 학력, 구분없이 누구나 다 신청 가능)

■신규자반 2기 배출 - 3기 수업중, 4기 모집중 6월 2일 개강

■자격증반 2기 배출 - 3기 수업중, 4기 7월7일 개강 ■경력자반 1기 배출 - 2기 모집중, 5월19일 개강

*국가 자격증 5개 취득 권당 *앞으로 수료 후 계속하여 국가 자격증 배출

※경력자반 - 노동청의 보조로 50%-70% 수강료 지원받음.

※기존의 간병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케어복지사, 노인복지사 등 봉사요원은 이제(요양보호사)국가 자격으로 기회입니다.

* 넓은 주차시설 * 셔틀버스 운행 * 쾌적한 공간

강원요양보호사교육원 ☎033)241-2660 242-7664(FAX겸용), HP 011-448-7660 춘천시 동면 발곡리 192번지 (동면 옥광산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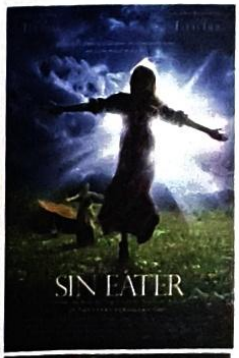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실행!



요양보호사 필요하신 시설이나 개인간병 필요하신 분 연락요망!

기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12>

라스트 씬 이터 (The Last Sin Eater)





성시신문에 영화소개를 시작한지 1년이 다 되었다. 부쩍 작품생활로 바빠지고 있는 일상 중에도 다달이 소개할 영화를 찾고 감상하며 글 쓰는 일을 의무처럼 감당하고 있던 차이다. 어느 날 문득 눈에 들어오는 〈라스트 씬 이터〉라는 이상한 제목의 영화가 있어 검색하여 본바 처음에는 무슨 이교도의 내용인 것 같았다. 그래서 보는 것을 여러 번 망설이다가 결국 보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필자로 하여금 왜 그렇게 많은 영화를 보도록 방치(?)하셨는지 그동안 남몰래 품은 조그만 의문에 대한 답이 비로소 보이는 것이었다! 이 영화를 만나기 위해 일 년여의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

춘천성시신문은 이 아름다운 도시를 거룩하게 하여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노력의 중요한 일환이다. 달마다 거룩한 이슈를 특집으로 하여 기도의 힘을 모으고, 참 진리와 사랑의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상에 널리 주님을 증거 하는 언론의 도구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이 있다면, 바로 이 영화가 참으로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줄 수 있지 않나 싶다. 성시화 운동의 가치와 방법에 또 하나의 귀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다. 한 마을을 지배하던 오랜 관습과 가치관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씬 이터(Sin Eater)는 말 그대로 죄를 '먹는 사람'으로 번역된다. 그것은 웨일즈신화에서 나왔다고 한다. 1850년대에 애팔래치아산맥 속의 어느 지방에서 전통적인 의식에 따라 제비를 뽑아서 그 '죄 먹는 사람'을 선출하면 그 사람은 마을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모르는 깊은 동굴 같은 곳에 숨어 살다가 마을에서 누군가 죽으면 장례식에 나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 죽은 자의 몸에 놓인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이 어느 소녀의 죄책감으로 인한 모험적인 행동(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한 소녀 캐디 포브스는 수수께끼의 남자가 할머니의 무덤가에 앉아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할머니의 죄를 사해 주는 광경을 목격한다. 캐디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 남자를 찾아 나선다.) 중에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참된 진리의 능력을 깨닫는 과정에서 허물어지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도영화로 규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기엔 영화적인 작품성이 매우 뛰어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과 설득력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프렌시스 리버스의 동명소설을 각색하여 무명의 감독 '마이클 랜든 주니어'가 연출한 이 작품은 우선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 그림 같은 영상미를 바탕으로 물 흐르듯 자연스런 이야기 구조와 감동적인 연기로 끝까지 몰입하게 만든다. 주인공을 맡은 아역배우도 무명의 첫 출연작이라고 믿기 힘들만큼 아주 깜찍하고 멋진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2007년에 만들어지고 개봉되었으나 흥행작만을 거는 우리나라의 영화관 실정상 쉽게 접할 수 없는 이 영화를 만나고, 거기에서 진정한 구원으로서의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을 읽고 성령을 체험하는 만큼의 은혜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성시운동에 참여하는 목회자분들과 성도들은 물론 불신자들 모두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다.

[편집위원 김 춘 배]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저녁 7:30 늘사랑교회에서 성시신문에서 소개한 영화를 상영합니다.

재난의 현장을 가다!

[사진과 함께 하는 중보기도]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172242-51-085114
Y신협 04073-12-009998
새춘천 04060-12-000982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5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광염감리교회	
광영장로교회	거성침례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랑성결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장로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담장로교회	
예수촌교회	주향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영성감리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사랑의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중앙성결교회	한빛장로교회	
춘천와이신협	천일현수막	
국민일보 춘천지사	자연유치원	
디티피아	앤투어	
쏘인테리어	씨앗컴퓨터학원	
제시뉴욕		
김기태	김미경	김은선
김길홍	김진삼	김현철
김영명	박동환	신성균
심인섭	안미애	안정숙
엄필남	오의석	오홍수
이용규	이원기	이원영
이병연	장기영	정천복
조은제	최상호	최치광
한희현	황병찬	허순영
홍순복		

춘천기독교연합회 회비 납부 교회(2008. 4 - 5월 이후)

농 협 301037-51-060105
Y신협 04073-12-004285
예금주 춘천기독교연합회

(연합기금마련을 위해 동참 바랍니다)

광영교회	광염교회
나눔교회	동부교회
동신교회	새순교회
소양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와이신협	은혜교회
제일감리교회	제일장로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중부교회	평화교회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 010-4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 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하나투어 HANATOUR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주말에 여행 알아보기 힘드셨죠?
여행 매니저와 상담하세요. 언제, 주말 언제나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EL:244-1212 (하나투어)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NTOURS 이마트내 1층에 입점해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 된다!

조인형 장로(서울 영세 교회)
강원대학교 명예 교수

인간 사회는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다. 화목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다. 인류역사는 전쟁과 평화의 연속이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볼 때처럼, 사랑하면 예뻐 보이고 증오하면 미워 보인다. 심는 대로 거두듯이,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미움은 분열을 낳고 사랑은 일치를 낳는다. 사랑은 용서를 낳고, 미움은 불화를 낳는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랑이 더 좋은 사랑이다.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보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 더 위대한 사랑이다. 사랑은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먼저 베푸는 사랑이 더 아름답다.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진실한 사랑의 행동이 마음을 움직인다. 사랑은 창조를 가져오고 미움은 파괴를 초래한다. 사랑하면 서로 번영하지만, 미워하면 서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사랑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사랑은 승리의 원동력이다.

미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미움은 정의의 상실에서 온다. 미움은 독선과 과욕에서 온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것이다.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는 것이다. 관계의 단절을 초래한다. 심하면 분쟁이 시작된다. 더욱 심하면 전쟁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조건 없이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때가 많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기를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하던 주님의 기도를 해 보자.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울러 성서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자. 아버지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을 상속의 지분을 받아내어 다 팔아 집을 나가 방황하다가 재산을 모두 탕진한 후 자기 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위해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환대하였다. 이 아버지의 넓은 가슴을 상기해 보자. 우리들이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현실 속에서 실천만 한다면,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위대한 승리의 주역이 될 것이다.

반세기 이상 분단되어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던 형제가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처럼, 자기를 희생시켜 자기를 미워하는 상대방을 구하려는 아가페적 사랑만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이 될 것이다.

이제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자. 지난날의 상처를 서로 위로하면서, 지난날의 허물을 서로 감싸주면서 이념과 체제를 넘어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자. 그래서 남북한의 형제들이 자주 만나 서로 가슴을 부둥켜 안고 허물을 탓하기 전에 사랑을 노래하자. 이 길만이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이 민족이 살고 이 겨레가 사는 길이 될 것이다.

❀ 알려드려요 (교회소식 및 행사내용을 게재해드립니다. 매월 20일까지 연락바랍니다. ☎256-1260)

◆ 어린이연도연합회

1)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일시: 6월 16일(월), 17일(화), 19일(목) 오후6:30
장소: 신성감리교회
등록비: 1인당 15,000원
문의: 253-1443 [http://cafe.daum.net/oefch/]

◆ 에스컴

1) 청소년 리더십 훈련과정 "위대한 인생"
일시: 4월 26일~7월 12일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6시
장소: 에스컴 사무실
회비: 3만원(기독등아리, YPMC는 2만원)
양육과정: 기초신앙다지기/ 인성훈련/ 비전발견하기
담당자: 신유정 간사(010-5422-2321)

2) 에스컴 프레이즈
일시: 6월 21일(토) 오후6시
장소: 중앙성결교회

3) 멜퍼 수련회
일시: 6월 23일(월) ~ 25일(수)

4) 2008 YES COME SUMMER CAMP
"군계일학(평범한 무리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
일시: 8월 4일(월) ~ 6일(수)
장소: 충신수양관(경기도 마석)
강사: 박상현 목사(미국라스베가스성시화 사무총장)
등록비: 5만원(선착순 400명, 현등록 120명)
문의: 244-5400, 에스컴클럽club.cyworld.com/yescomeblve
신유정간사010-5422-2321 한승연간사010-3369-6994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제주선교 100주년 1차 미션(제주도 지역교회와 협력)
일시: 6월 28(토) ~ 30일(월)
문의: 252-0542, 254-5776

2) 부부생활세미나
일시: 6월 6일(금) ~ 7일(토)
장소: 대전 엘본수양관
문의: CCC본부 가정선교원 (02-394-0635

◆ 예수원도문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6:30
장소: 춘천등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문의: 춘천지부 033)252-1128 [http://town.cyworld.com/coywam]

◆ IVF

1) 전임사역자모임
일시: 6월 2일(월) ~ 3일(화) 오후4시
장소: 홍천 대명비발디파크

2) 간사중강모임
일시: 6월 18일(수) 오전10시 장소: IVF회관

3) IVF 전국수련회
일시: 6월 30일(월) ~ 7월 5일(토)
장소: 횡성 성우리조트
문의: 252-5200

◆ JDM

1) 말레시아 선교사 파송예배
일시: 6월 5일(목) 오후7시30분 장소: WDTI

2) 전체 중강예배
일시: 6월 12일(목 오후 7시
장소: 강원대학교 심사구시관(예정)

3) 제자양전
일시: 6월 24일(화 ~ 23일(수)
장소: 전국 기독교유적지 및 제주도

4) 전국이사수련회
일시: 6월 5일(목) ~ 6일(금 장소: WDTI
문의: 252-3192 / 010-9054-3192

◆ GBT성경선교회

1) 위클리프스쿨 수료식
일시: 6월 3일(화) 오후7시 장소: 예담교회
강사: 이상용 선교사(서남아시아 9족, 안식년)

2) 위클리프스쿨 정기회
일시: 6월 9일(월) 오후4시
장소: 서울 제자들교회

3) 리더십 계발 세미나
일시: 6월 10일(화) ~ 6월 13일(금)
장소: 제주도
강사: 홍은선 선교사(위클리프 아시아/태평양동원 컨설턴트, SIL아시아 문화인류학 연구가)
문의: GBT 춘천지부 이지혜 간사017-383-2416
[chuncheon@v2025.or.kr]

◆ 세계태권도선교회 춘천지회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9시~10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65

◆ 세부5개 위성선교단 모임

1) 워십댄스 토요모임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5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2) 어린이 워십반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5시
문의: 263-6022, 017-374-2440

◆ 제이락(춘천연합찬양단)

1) 정기예배
일시: 6월 2일(월) 오후7시30분 장소: 효자감리교회
문의: 박유식 010-9368-9856

◆ (재)기독교한국효신선교회

1) 기독교대안학교 학생모집
기독교세계관과 영어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대안학교형태의 국제학교대상: 중고교생 www.hyoshinschool.com)

2) 영어교사모집
대상: 영어를 구사하는 신실한 크리스천

3) 기독교세계관 독서토론모임
일시: 월, 화 오후5시~7시(전화문의후 방문요)
장소: 효신선교회 사무실(온의동 한토공예관 뒤)
문의: 011-9737-1919 방연규 재단총무

◆ 춘천 경찰서교정협의회 부흥성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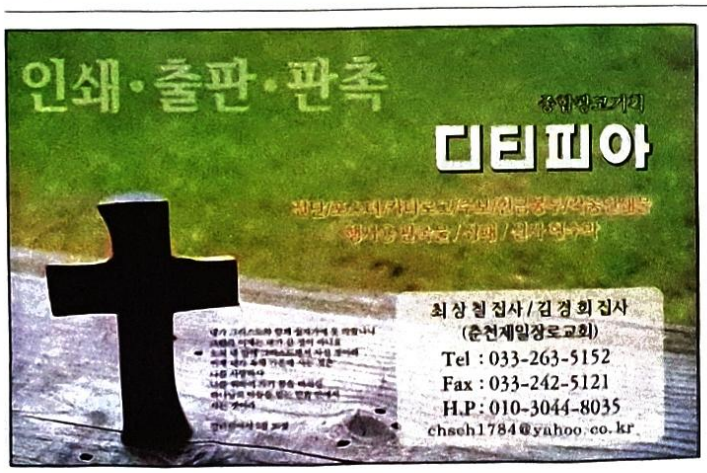
일시: 6월 1일(주일) ~ 4일(수) 오후7시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강사: 이태희 목사(서울십복교회)
문의: 교정협의회 사무실 252-1717

◆ 올리브원 12주년 기념 성시화 선교대축제

일시: 6월 9일(월) ~ 11일(수)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강사: 장경동 목사
문의: 011-370-4702 사무국장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일시: 6월 16일(월) ~ 19일(목) (4일간) 오후1시30분 ~ 5시
장소: 소양제일교회(퇴계동 한주A 앞)
대상: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호스피스 봉사하고 있는 모든 분
교육비: 신규30,000원 보수20,000원(교재 및 간식포함)
신청: 전화 사전접수 또는 교육당일 현장 접수
문의: 봄내호스피스 263-5454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성시화를 위한 사무국 예배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국 월례예배가 5월 9일(금) 오전11시 성시본부에서 있었다. 남춘천순복음교회 오의석목사(연합회 총무)는 '영적인 눈을 뜨자'를 제목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사고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설교하였다.

■ 기쁨의집 봄나들이



봄내호스피스 기쁨의집(대표:이주호목사)에서는 5월 1일(목) 환우들과 자원봉사 목요봉사팀과 한림대 사회복지과 학생들이 함께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도림화목원을 찾아 봄나들이를 즐겼다. 그동안 실내에서만 생활하던 환우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과 꽃들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 쉐마교육 목회자 세미나



춘천교역자연합회(회장:피종호)는 5월 13일(화) 오전10시 신성감리교회에서 쉐마교육의 대가 현용수박사 초청 목회자 일일세미나를 열었다. 현용수박사는 "구약의 지상명령 쉐마교육"을 주제로 유대인의 종교를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과 쉐마교육이 교회성장과 교회교육 위기의 대안이라고 강연하였다.

■ 어린이를 위한 운영위원회 실시

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최기원)은 5월 22일(목) 오전7시30분 세종호텔에서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다. 운영위원회는 그동안 본 기관의 사업에 대한 자문과 후원조직 및 피학대아동들의 지원에 적극 활동해왔다. 이를 통해 지역자원 연계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해본다.

■ 오늘은 즐거운 날



2008 기독교대한감리회 춘천동·서·남·북 4개 지방 목회자부부 연합체육대회가 5월 13일(화) 춘천퀸벤선홀에서 열렸다. 배구, 족구,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목회자 간의 교제와 화합을 이루고 지쳐있는 심신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준비된 성시지도자를 위한 2기 성시아카데미



지난 4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7시에 진행되고 있는 2기 성시아카데미(원장:피종호)가 5월에도 계속되고 있다. 19일 통일연구원 허문영박사는 "샬롬 코리아나와 기독인의 역할"을 제목으로, 26일 부산성시본부 유임근사무국장은 "하나님의 눈과 부산성시화운동의 전망"이란 제목으로 열정적인 강의로 도전을 주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에는 신기형목사(하나님나라와 리더십), 예수원 벤토레이신부(북한선교를 위한 구체적 준비), 여명학교 조명숙교감(탈북자를 위한 대안학교), 포항성시본부 정석관사무총장(성시화운동과 영역별 선교),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정지웅박사(독일과 에멘의 통일과정)가 성시화와 통일을 주제로 강의하게 된다.

장로교 한마음체육대회



춘천장로교연합회(회장:권기호목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2일(월) 춘천컨벤션홀에서 "한마음체육대회"를 열고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개회예배 후 족구, 피구, 배드민턴 등의 팀별경기와 어린이 레크리에이션, 공동체게임, 사랑의 바자회와 먹거리장터,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펼쳐 서로 연합하고 함께 즐기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EF 복음축제



강원대기독교수회와 선교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제13회 음악과 강연의 밤(EF축제)'이 5월 22일(목) 오후7시 강원대 백령문화관 1,800석을 가득 메운 뜨거운 열기 속에 열렸다. '5월, 당신의 마음을 두드립니다'를 주제로 비보이의 댄스, 아카펠라 공연, 난타의 퍼포먼스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어 분당우리교회 이찬수목사는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미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라고 당부하였다.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는 기획과 복음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었으며, 무엇보다 800여명 이상의 비신자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복음 집회였다.

■ 기독영화 상영



춘천성시신문편집위원회(위원장:최영조)는 성시신문에 소개됐던 기독영화 "에반 올마이트"를 5월 15일(목) 저녁7시30분 늘사랑교회에서 상영하였다. 에반 올마이트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경쾌한 코믹터치로 다뤘다.

■ 문화도시 춘천을 위한 중보기도회



'봄봄', '동백꽃'의 작가 김유정 탄생100주년 기념 봄·봄 스토리 페스티벌이 2008년 2월부터 11월까지 다채롭게 진행되며, 5월에는 창작공연, 청소년 문화축제 등이 열렸다. 이번 김유정문학제가 춘천을 홍보하고 발전시키며 지역예술의 세계화를 도모하는 문화제로의 정착을 위해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한균목사)는 5월 17일(토) 오후1시30분 신남교회에서 모여 뜨겁게 중보기도 하였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전한 문학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하였다.

■ 춘천 CBS 북강원도 결핵어린이돕기



춘천 CBS(본부장:김세환)는 5월 26일(월) 오후3시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장 김주환목사와 북강원도 결핵퇴치운동본부 조남진장로, 강원일보 이희종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북강원도 결핵어린이돕기 범도민운동 협정식"을 가졌다. 아울러 월드비전 강원지부(관장:박재호)가 도내 18개 시군과 각 교회, 기관, 단체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랑의 쉼나누기 캠페인"을 공동 주최하기로도 합의하였다.

■ 물과 생명 그리고 환경



창조도시 시민포럼은 5월 29일(목) 오후7시 한림대하교 국제회의실에서 "물과 생명 그리고 환경"을 주제로 시민을 위한 열린포럼을 개최하였다. 연세대 김현원 박사는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은 건강을 유지해줄 뿐 아니라 만성병을 치유케 한다"며 "생명의 물, 기적의 물의 위력에 대해 강연하였다.

취재 · 김미경

chcm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춘천 성시화를 위한 3천 성시후원자를 찾습니다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도 제목

- 춘천이 성령충만하고 범죄 없는 거룩한 복된 도시로
- 춘천이 예술과 문화, 교육과 환경의 세계적 명품 도시로
- 교회와 열방을 위한 신실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도시로
- 춘천이 살기 좋고 아름다운 행복한 모델 도시로

후원자 참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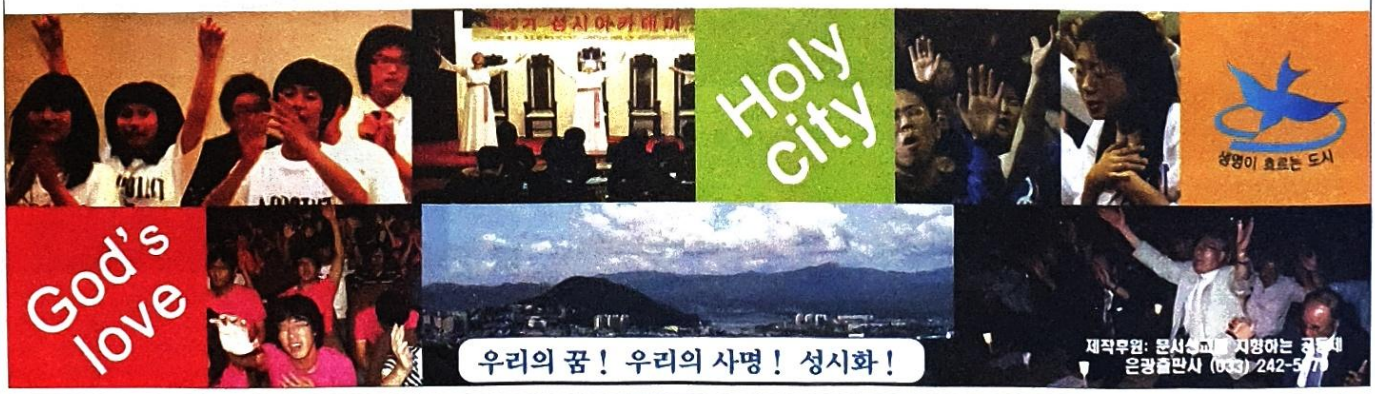
- 성시 3천 기도후원회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1인 월회비 최소 2,000원을 약정해 주세요.(자동이체)
- 119기도운동에 참여해 주세요.(하루 1번 9분 기도하기)

문 의 : 033) 256-1260~1 춘천성시화운동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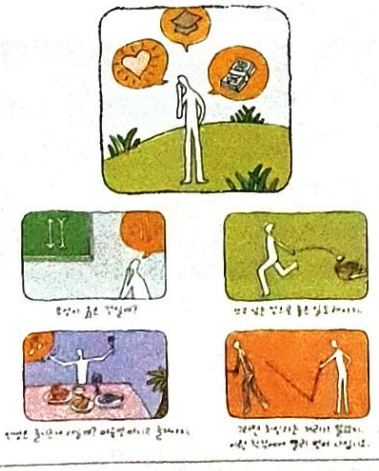
[홈페이지: www.holycity.or.kr / E-mail: hc1260@hanmail.net]

후원계좌 농협 172242-51-085114, 와이신협 04073-12-009998
새춘천신협 04060-12-000982 -예금주: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주일을 지킵시다! 10월은 성시화운동이 태동된 달입니다.
10월 첫째주일을 성시주일로 지켜주시고, 성시화운동을 위해 헌금해주세요.♣



당신의 인생버스는?



지금 당신은 이러한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내세는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양심껏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계실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그 착각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선행과 철학, 미신 등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이 모두가 헛된 것이며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미 예수께서 당신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다면
그 책임은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요!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12)

[교회소개란]

각 교회 전도지로 사용하세요.

전리의 길 · 3

춘천성시화운동본부